

출전 표기의 실제

간단한 언급에서 요약(summarizing)이나 바꿔 쓰기(paraphrasing) 혹은 인용 부호(quotation mark)를 사용하는 직접 인용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자신의 글에 참고한 다른 사람의 글(source)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경우를 넓은 의미의 인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두 출전 표기를 해야 한다. 출전 표기의 기본 의의는 저자가 독자에게 자신이 참고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저자명, 자료명, 자료의 출판일, 인용면수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전 표기는 주로 주석에 의한다. 주석의 종류는 내용상으로는 출전 표기를 위한 주석(참조주)과 부연 논의를 위한 주석(내용주), 위치상으로는 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내주(內註)와 본문 밖에 표시하는 외주(外註)로 나눌 수 있다. 외주는 다시 본문의 해당 면 하단에 표시하는 각주(脚註)와 각 장(章) 혹은 전체 본문의 가장 뒤에 표시하는 미주(尾註)로 나뉜다.

출전 표기 방식의 대원칙은 학문 분야별로 요구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출전 표기 방식과 참고 문헌 작성법은 각 학문 분야별로 간행되는 학회지의 논문 투고 규정에 설명되어 있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및 순서, 사용되는 부호 등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경우가 있다.

①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은 <http://www.kea.ne.kr/main/?skin=public_contri01.ht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 설명된 출전 표기 방식은 내주의 형식을 따른다. 이 학회에서 간행하는 『경제학 연구』에 수록된 실제 논문의 일부를 통해 출전 표기 방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¹⁾

1) 김상호, 「연금지출과 가계저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5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07, p.122.

공적연금제도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논문으로 원종욱(1999), 윤석명(2000), 임경목·문형표(2003), 강성호·임병인(2005), 김상호(2003, 2005)의 연구가 있다. 원종욱(1999)은 1993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 민간저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자영업자의 저축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널자료 대신 단일연도 자료를 사용한 데서 발생하는 한계와 회귀방정식 모형설정의 부적절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²⁾ 윤석명(2000)은 공적분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사회보장제도가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이 뒷받침되지 않았다.³⁾

- 2) 원종욱은 연간소득에서 연간소비를 차감하고 이를 연간소득으로 나눈 저축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애주기이론에 충실하게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려면 단일연도 저축 대신 기준연도까지 축적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구성원 개인의 정보가 제공되는 패널자료와 달리 시계열자료에서는 구성원의 정보가 합산되기 때문에 합산의 문제(aggregation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 출전 표기는 ‘원종욱(1999)’와 같이 내주 형식을 취하며, 본문 하단에 표시된 각주는 부연 논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내주 형식을 취할 경우, 자료명 등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문 뒤에 붙이는 참고 문헌에서 자료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의 논문의 참고 문헌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6. 배준호·김상호,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 2005.
- 7. 원종욱,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가 직역간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2호, 1999, pp.229-242.
- 8. 윤석명, “공적분 방법을 이용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민간저축효과 분석,”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년도 제1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본문에서 ‘원종욱(1999)’, ‘윤석명(2000)’으로 표시된 자료는 참고 문헌에서 보충된 정보에 의해 출전 표기의 충분한 내용을 갖출 수 있다.

②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논문 투고 규정은 <<http://www.delsa.or.kr/xe/index.php?mid=tug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 설명된 출전 표기 방식은 외주(각주)의 형식을 따른다. 이 학회에서 간행하는 『민주법학』에 수록된 실제 논문의 일부를 통해 출전 표기 방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²⁾

2) 서경석, 「87년헌법제정과 헌법정지」, 『민주법학』 제3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pp.140-141.

그간 주창되어 왔던 개헌논의를 살펴보면 87년헌법체제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분명해진다. 신자유주의⁴⁾를 헌법전에 담으려는 취지에서 사회국가원리와 사회권에 관한 규정들을 폐기하고자 하는 시장지상주의자그룹과 반공적 헌법담론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강화를 꾀하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한편이고, 신자유주의로 기울어가는 87년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면적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민주적 헌법강화론이 또 다른 한편이다.⁵⁾ 시장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헌법에 들어있는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라는 것이다.⁶⁾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대자본주의가 포스트 포드주의적 생산체제로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내용으로 할 수 없다는 데에 바탕하고 있다. 즉 통화주의적 긴축재정, 소득세 감세와 공급위주의 경제정책, 복지예산 감축과 공공부문의 규제완화와 예산삭감, 노동자의 권리 축소 등을 배경으로 하는 포스트 포드주의⁷⁾는 사회국가와 나란히 갈 수 없다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로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성구·김세균 외 지음,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61-62쪽)이다. 헌법현상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상세한 것은 좋고, 「신자유주의와 현대헌법」, 『민주법학』 제23호, 2003, 239쪽 이하.
5) 상세한 것은 좋고, 「헌법개정 논의 구조」, 『민주법학』 제31호, 2006, 47쪽 이하.
6) 정순훈, 「경제규제완화와 헌법에 관한 연구」,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자유기업센터, 1997, 25-123쪽; 김정호, 「헌법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헌법개정의 과제와 정책방향』, 제29회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2003, 103-154쪽; 민경국, 「헌법적 질서는 자생적 질서로부터 도출해야」, 자유기업원 편, 『경제헌법 개정을!』(제7회 자유주의 워크샵 자료), 1998, 68-74쪽.
7) 김세균, 앞의 글, 69쪽.

위의 논문에서 각주는 출전 표기와 부연 논의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각주 형식을 취할 경우에도 완전한 논문의 형태를 갖추려면 참고 문헌을 붙여야 하지만, 각주의 내용만으로도 참고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참고 문헌은 생략할 수도 있다.

③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은 <<http://www.kormb.or.kr/home/kor/article/info.asp?globalmenu=3&localmenu=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학회에서 간행하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에 수록된 실제 논문의 일부를 통해 출전 표기 방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³⁾

이공계 논문의 경우, 출전 표기는 중괄호([]) 안에 참고 문헌의 번호를 표시하는 때

3) 엄치용·송승은·박미화·김영민, 「Methylovorus sp. Strain SS1 DSM11726으로부터 rpoH 유전자의 클로닝과 염기서열 분석」,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제35권 제3호,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2007, p.177.

세균이 고온의 환경에 노출된다거나 혹은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에 대응하여 세균에서는 일련의 열충격 단백질이 빠른 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합성된다. 열충격 단백질에는 세포 내 단백질의 올바른 folding을 유도하는 molecular chaperone과 잘못된 3차 구조를 지닌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단백질가수분해효소 등이 포함된다. 대장균에서 열충격 유전자의 발현은 전사적 수준에서 조절 받으며[15], 이러한 열충격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는 RNA 중합효소의 특이한 sigma factor($\sigma 32$)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8, 26].

대장균의 경우 30°C에서 42°C로 옮겨 열충격을 주게 되면 최소한 30개 이상의 열충격 유전자의 전사가 $\sigma 32$ 를 포함한 RNA 중합효소에 의해 유도된다[19].

우 간단한 방식을 취한다. 가령, 「3, 8, 26」으로 표시된 출전 중 '3'에 해당하는 내용은 참고 문헌의 '3. Bukau, B. 1993. Regulation of the Escherichia coli heatshock response, Mol. Microbiol. 9: 671-680.'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